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찬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금일 단기선교팀 기도와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중환,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공동의회 공고 : 2018 년 1 월 28 일(주) 예배후 본당  
안건 : 2017 년 결산 및 2018 년 예산, 감사 선출
- 교육부 교역자와 학부모 간담회 : 1/21(주) 2:00-2:20.  
교육부 전체와 각 부서의 올해 사역 목표와 계획을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제직세미나 : 1/28(주) 오후 5 시.  
뉴하트선교교회 (정민철 목사). 강사: 박동건 목사. 주제: 코칭 공동체 훈련 (별지 참조)

2018 년 1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안 상민 집사 / 시편 62:5-12

이번 주 친교 : 이 영순 권사 / 홍 영순 집사

다음 주 친교 : 김 은영 집사 / 강 승연 자매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 제 18 권 02 호

2018 년 1 월 14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8 년 표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Which is Christ in You)” (골 1:27)

### 주일에배순서

2018 년 1 월 14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8 장 (통 9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20 장 (통 41 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대표기도 (Invocation)	시편(Psalms) 139:1-6, 13-18	송 성현 집사
찬양 (Choir)	"주는 나의 목자"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Matt) 9:35-38; 사(Isa) 50:4	인도자
설교 (Sermon)	"주님의 일(1): 가르치시며"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391 장 (통 446 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 2018. 1. 7. 주일 설교 요약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골 1:13-23)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새로운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창세기의 “태초”와 같은 단어들로(막 1:1, 눅 1:2, 요 1:1)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창세”기와 같은 어근)는 7 일간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는 14 대의 계보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됩니다. 한 주를 완성하는 안식일을 지나고 새 주가 시작되는 “안식후 첫날”(요 20:1, 19, 26)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와 새 시작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열린 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새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고 합니다(골 1:18). 그 새 창조의 근본되심과 동일한 표현들이 “교회의 머리”신 것,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것,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새로운 창조의 소식은 우리에게 먼 나라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믿어서 새 피조물이 되느냐, 거부하여 썩어져가는 옛 피조물과 함께 멸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로 여신 새 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믿음과 찬양과 고난 가운데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완성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창세기의 언어로 묘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신 것이 우리가 믿게 된 이유입니다(고후 4:6). 교회의 믿음도 천지개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의 찬양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드리는 찬양 중 으뜸입니다. 구속받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영광의 찬송입니다(사 43:21; 엡 1:6, 12, 14).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라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송이 삼인칭이라면(“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찬송은 일인칭입니다(“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결과이며 증거이며 찬송의 이유다”). 우리의 찬송은 이유가 있으며 찬사도 흠모합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고난도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는 일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된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인데,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 장차 영광을 바라고 참는 견디는 인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눈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로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는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한 씨뿌림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동도의 광야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열린 새 하늘 새 땅을 향한 힘차고 확실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관계와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우리 노력이 새 세상을 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소용도 없지만, 이미 새 세상을 여신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새 세상의 놀라운 기쁨에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던 것보다 늘 크고 놀라운 분으로 새롭게 만나는 한 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처럼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매일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 가운데 씨를 뿌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